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김창락*

1. 신약성서 번역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의 하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호티'(ὅτι)와 '가르'(γάρ)의 의미를 올바르게 살려서 번역하는 일이다. 영어와 독일어에는 because/for, weil/denn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리스어 접속사를 번역하는 데 형식상의 난관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자들은 때때로 이 문제에 특별한 곤혹을 당하게 된다. 한국어에는 영어나 독일어와는 달리 그리스어의 '호티'나 '가르'에 대응되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에도 이 두 접속사의 의미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한국어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술어(述語)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 접속사에 담긴 의미를 표현한다. 즉 '하므로', '하기 때문에', '하니' 등등과 같은 형태로 술어가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 번역문의 문장 구조는 원문의 구조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문장론적으로 분석하면 '호티'/because/weil이 이끄는 문장은 종속절이고 '가르'/for/denn이 이끄는 문장은 대등절인데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종속절이 대등절로 또는 대등절이 종속절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문장의 의미는 그 안에 사용된 낱말 하나 하나의 총화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통해서 결정된다. 즉 어느 한 문장의 의미는 전후의 문장과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문장이 문장 구조적으로 종속절인지 대등절인지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접속사의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면 문장 구조가 파괴되고 문장 구조에 충실하려고 하면 접속사의 의미가 상실된다.

* 성경원문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신약학.

이 문제는 특히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번역할 때에 발생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 「표준새번역」의 ‘개정원고’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의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3-10절과 누가복음 6장 20-21절의 복 선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것이기 때문이다’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은 다 같이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접속사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것이다’라고 번역했다. 이와 달리 일찍이 「개역판」은 단순히 ‘것이니라’하는 대신에 ‘것임이니라’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어 원문에 사용된 접속사의 의미 또는 영역본 성경에 사용된 for라는 대등접속사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고심했다. 최근에는 가톨릭 교회의 「200주년 기념성서」가 또한 이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애썼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

그렇다면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번역한 개정판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번역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번역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필연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옮겼느냐는 논란과 어떤 번역문이 우리말 어법에 더 잘 어울리느냐는 논란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가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번역문의 질을 평가할 때에 원문의 의미에 충실함과 우리말 어법에 어울림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느냐는 물음은 사람에 따라 답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의사 전달의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표현하듯이 언어 미학적 감각이 결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더 좋으냐는 판단도 각 사람의 주관적 느낌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문장의 번역에 대한 평가를 해결 불가능의 문제로 분류해 둘 수는 없다. 사실 그리스어의 ‘가르’라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는 한국어 번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King James Version(KJV)*, *Revised Standard Versio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 *Luther Bibel(LB)*, *Züricher Bibel(ZB)* 등등은 ‘호티’와 ‘가르’의 의미를 변별해서 번역할 때에 거의 기계적으로 *because/weil*, *for/denn*으로 대입시켜 번역했다. 이와 달리 많은 경우에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New English Bible(NEB)*, 「영어판 예루살렘 성서」, *Die Gute Nachricht*는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접속사 없이 번역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CEV)*은 놀랍게도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르’의 의미가 들어 있는 문장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접속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번

1)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임. 뒤의 표에서는 「표새개정원고」로 함.

역했다. 이것은 ‘가르’의 번역은 서구어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신약성서에서는 ‘호티’와 ‘가르’의 의미가 명확하게 변별되어 사용되지 아니했는가? 그렇지 않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야지 팥으로 메주를 쑤면 잘못이듯이 ‘호티’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가르’를 대치하거나 ‘가르’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호티’를 사용하면 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신약성서에는 ‘호티’가 ‘가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가르’가 ‘호티’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리고 ‘호티’가 적절한지 ‘가르’가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그리스어 어법의 불명료성이나 어느 저자의 표현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그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적 사고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호티’나 ‘가르’가 사용된 문장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번역하면 이 두 접속사는 똑 같이 ‘키(כי)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키’라는 접속사는 앞뒤의 문장과의 내용적 관련 속에서 ‘호티’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가르’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 A: “바람이 솔솔 분다. 햇볕은 쨍쨍 쬐다.”

B: “태풍이 불었다. 파도가 쳤다.”

위의 A, B 두 글은 각각 두 가지 자연 현상을 아무 접속사 없이 이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글의 독자는 앞뒤의 두 가지 자연 현상 사이의 관계를 추리하면서 읽는다. 즉 두 문장 사이에 적합한 접속사를 삽입시킨다. A는 “바람이 솔솔 분다. 그리고/그런데 햇볕은 쨍쨍 쬐다”로, B는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파도가 쳤다”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현상과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 현상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나 상관 관계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고 단순히 병렬되어 있는 셈이며 태풍이 분 현상과 파도가 친 현상 두 현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원인이 된 현상을 부사절로 표현하면 “태풍이 불어서/불었으므로/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쳤다”로 되며, 결과로 나타난 현상 다음에 독립 문장으로 연결하면 “파도가 쳤다. (그것은) 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로 된다.

C: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다.

C에서 앞뒤의 두 문장 사이에는 어떤 의미상의 관계가 있는가?

1) “봄이 왔다. 그리고 제비가 돌아왔다.”

2) “봄이 왔다. 그래서 제비가 돌아왔다.” “봄이 와서/왔으므로/왔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왔다.” “제비가 돌아왔다. 봄이 왔기 때문이다.”

C는 위와 같이 1) 2) 두 가지 해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3의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

3)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으니.” “제비가 돌아왔으니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온 것을 보니 봄이 왔다.”

3)의 경우에는 필자/화자가 봄이 왔다는 판단/인식/주장을 하는 데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다. 봄이 왔는지 아니 왔는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달과 날의 도래나 기온의 변화 여부로 결정된다. 그러나 3)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제비가 돌아온 현상을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다.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파도가 쳤다”와 “봄이 왔기 때문에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문장에서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와 “봄이 왔기 때문에”는 “파도가 쳤다”와 “제비가 왔다”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표시한다. “제비가 돌아왔으니/돌아온 것을 보니 봄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제비가 돌아왔으니/돌아온 것을 보니”는 “봄이 왔다”는 판단/인식/주장을 하는 데 대한 근거 또는 이유를 표시한다. 전자는 자연적·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두 현상 사이의 인과 관계의 원인을 지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유(思惟)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에서 앞 뒤 현상의 관계는 직접적이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앞 뒤 현상의 관계는 오직 필자/화자/독자/청자의 논리적 사유 작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될 따름이다. 전자에는 원인으로 작용한 현상은 그 결과로 일어난 현상보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행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의견/주장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증거/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원인을 제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제비가 돌아온 것은 봄을 오게 한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비가 왔으므로/왔기 때문에 봄이 왔다”거나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어떤 의견/주장에 대한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는 한국어에는 없지만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에는 ‘가르’/for/denn이라는 접속사가 있다. 이것은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문장 뒤에 놓인다.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말을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에서 접속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려면 “봄이 왔다”는 문장 다음에 ‘가르’/for/denn + “제비가 왔다”라는 대등절을 이어놓아야 한다. 이 경우에 ‘가르’/for/denn을 ‘호티’/because/weil로 대체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4. 그러나 실제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위의 A, B, C의 사례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어느 한 쪽으로 이해되지 않고 양쪽이 다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갑돌이는 게으르다. 그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말에서 “갑돌이는 게으르다”는 사실은 “그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갑돌이는 온 종일 빈둥거리고 있다”는 현상은 “그는 게으르다”라는 판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에도 대등접속사와 종속접속사를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신약성서에는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기 애매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발언을 할 때에 뒷 문장에다 ‘호티’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표현했다. 그렇다면 “그가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는가? 그럴 수 없다. 만일 원인이라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현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선행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현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주장의 논리적 근거/이유/증명이다. 다행히 모든 한국어 성서는 16절의 ‘호티’-절을 이유/근거를 표시하는 부사절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개역)/“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표준, 새번역)/“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200)라고 옳게 번역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고 KJV(흠정역), LB(루터 성서), ZB(쾨리히 성서), DJB(독어판 예루살렘 성서)는 이것을 because/weil로 번역했다. 그러나 NIV, RSV, NRSV 그리고 빌켄츠(U. Wilckens)의 신약성서는 이것을 for/denn으로 번역했다. NEB(새영어 성서), CEV, EJB(영어판 예루살렘 성서)는 아예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했다.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에 나온 판단/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이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령문 다음에는 ‘호티’절이 연결되기도 하고(약 5:8; 계 22:10) ‘가르’가 사용된 문장이 이어지기도 한다(마 4:17; 롬 13:1). 영어 성서와 독일어 성서는 이 ‘호티’-절을 because/ weil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하고 for/denn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이것은 명령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논리적 이유/근거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호티’, 영어에서 because, 독일어에서 weil이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6. 신약성서 전체에서 ‘호티’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가 390회 쯤 된다. KJV는 이 중에서 230회를 for로, 145회를 because로 번역했다. 이와 달리 NIV는 145회를 for로, 205회를 because로 번역하고 47회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다음에 나오는 <표 1>과 <표 2>를 보면 각 번역 성경마다 KJV가 for로 번역한 것을 얼마나 상이하게 번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 2>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마5:3	때문이다 (※)	×	×	ㅁ 이라	×	~이니	for	×	×	denn	×	denn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2	“	때문이다	×	“	×	“	because	for	for	“	×	“
34	“	“	때문이다	“	×	×	for	“	since	“	<u>2</u> , so <u>1</u>	
35	“	“	“	“	×	때문이다	“	“	“	“	“	“
35	“	“	“	“	×	“	“	“	“	“	“	“
45	×	×	×	“	×	“	×	×	for	“	×	“
6:5a	×	×	×	×	×	×	for	×	“	“	×	×
(13)	×	×	×	×								
7:13	×	×	×	×	×	×	“	×	since	“	×	denn
11:21	×	~므로	×	×	×	때문이다	×	×	for	“	×	×
23	×	×	×	×	×	사실	×	for	“	“	×	×
26	×	×	×	×	×	×	for	×	“	“	×	ja
29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때문이다	“	for	“	“	×	×
12:42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음이라	하였던 것이다	사실~던 것이라	“	“	“	“	×	denn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마13:16	~으니	~으니	~으니	~음으로	~으니	~으니	because	because	because	weil	because	denn
16	"	"	"	"	"	"	"	"	"	"	(")	(")
15:23	"	"	×	~오니	"	×	×	×	×	denn	<u>2</u> , so <u>1</u>	ja
16:17	×	×	×	×	~하시니	×	×	×	because	"	×	denn
16:23	×	×	×	×	×	×	for	×	"	"	because	×
17:15	×	×	×	하느니라	~으니	×	×	×	×	"	×	×
23:13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	×	"	×	×
(14)												
15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	×	denn	×	×
23	×	×	×	×	×	×	×	×	×	×	v	×
25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	×	×	×	×
27	"	×	×	×	×	×	×	×	×	×	×	×
24:42	"	때문이다	×	함이라	<u>2</u> 하니 ¹	사실 때문이다	because	for	because	denn	×	denn
44	"	"	×	×	<u>2</u> , <u>1</u>	사실	"	because	"	"	×	"
25:8	~하니	~하니	~하니	~하니	<u>하니</u>	×	×	×	×	"	×	"
13	때문이다	때문이다	×	×	<u>2</u> , <u>1</u>	때문이다	because	for	because	"	×	"
막5:9	"	때문에	때문이다	~음이라	많아서 그렇다	"	for	×	for	"	because	nämlich
6:17	... 때문에 일어난 일이였다	... 때문에 일어난 일이였다	...한 일로	...하였으 니 이는데...	때문이다	"	"	×	"	×	×	der Grand dagür ist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막8:33	×	×	×	×	×	×	×	×	×	denn	×	×
14:27b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때문이다	for	for	for	"	as	denn
눅1:37	×	×	때문이다	대저	×	사실	"	"	"	"	×	×
49	때문이다	때문이다	~음이다	~으니	덕분이다	×	"	×	"	"	×	denn
68	×	×	×	×	×	×	because	for	"	"	×	×
2:11	~으니	~으니	~으니	~으니	×	~으니	×	×	×	"	×	×
30	×	×	~사오니	~사오니	×	~사오니	for	for	for	"	×	denn
4:6	~이니	~이니	~으니	~이므로	~이니	~이니	"	"	"	"	<u>2 and 1</u>	<u>2 and 1</u>
32	때문이다	때문이다	×	~음이러라	때문에	했던 것이다	because	"	because	"	because	denn
41b	"	"	때문이다	앞이러라	때문이다	때문이다	"	because	"	"	"	"
43b	"	"	×	×	×	"	"	for	"	"	×	"
5:8	×	×	×	×	×	×	×	×	×	denn	×	×
6:19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함이더라	~하고는	때문이다	because	because	because	"	because	denn
20	"	×	×	~것임이라	×	~이니	for	×	×	"	×	×
21	"	×	×	"	×	~이니	"	×	×	"	×	×
21	"	×	×	"	×	~이니	"	×	×	"	×	×
24	"	때문이다	×	×	×	~이니	"	×	×	"	×	×
25	"	"	×	×	×	~이니	"	×	×	"	×	×
25	"	"	×	×	×	~이니	"	×	×	"	×	×
35	"	"	때문이다	×	×	×	because	because	for	"	×	denn
7:47	"	"	"	~음이러	하였으니	때문에	for	proves	because	darun	this is why-	Das zeigt sich-

역본 책장절	표새개정 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눅8:37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하여	겉을 먹고	했던 것이다	because	for	<u>2</u> and <u>1</u>	denn	because	×(do sehr)
42	“	“	×	감이러라	되었던 것이다	×	“	because	because	“	“	×
9:12	“	×	×	×	<u>2</u> 이니, <u>1</u>	×	“	for	for	“	×	ja
9:38	×	×	×	×	×	×	for	×	×	“	×	×
10:13	×	×	×	×	×	사실	“	×	for	“	×	×
21b	×	×	×	×	×	×	“	×	“	×	×	×
11:31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하였음이 러라	했던 것이라	했던 것이라	“	for	because	denn	×	denn
32	“	“	“	“	“	“	“	“	“	“	×	×
42	×	×	×	×	×	×	because	×	“	×	×	×
43	×	×	×	×	×	×	“	×	“	×	×	×
44	×	×	×	×	×	×	“	×	“	×	×	×
46	×	×	×	×	×	×	“	for	“	×	×	×
47	×	×	×	×	×	-했던 것이라	“	×	“	×	×	×
48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	~으니 말이다	때문이다	×	×	×	denn	×	denn
52	×	×	×	×	×	×	because	×	×	×	×	×
12:15	×	×	×	×	×	사실	×	for	for	denn	×	denn
32	때문이다	×	×	×	×	“	for	“	“	“	×	×
40	“	때문이다	×	×	<u>2</u> 이니 <u>1</u>	“	because	because	because	“	×	denn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눅13:24	×	×	×	×	×	사실	because	for	because	denn	×	×
31	×	×	×	×	×	×	×	×	“	“	×	×
33	때문이다	때문이다	리가 없다	범이 없다	수 있겠느냐	때문이다	for	because	since	“	×	“
14:11	×	×	×	×	×	사실	“	for	for	“	×	×
1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한 고로	×	사실	although	“	“	weil	<u>2</u> , <u>1</u>	denn
17	~으니	~으니	~으니	×	~으니	~으니	for	×	×	denn	<u>2</u> , <u>1</u>	×
15:24	×	×	×	×	×	사실	“	for	because	“	×	×
32	~으니	~으니	~으니	~기로	~으니	~으니	because	×	“	“	×	denn
16:3	“	“	×	~으니	~하니	~하니	×	now that	now that	da	new that	wenn
8b	때문에	때문이다	때문이다	~로움이 러라	×	사실	for	for	for	denn	that is why it is	denn
15	×	×	×	×	사실	“	×	“	“	“	×	×
24	×	×	×	×	×	×	because	“	“	“	×	denn
18:14	×	×	×	×	×	사실	for	“	“	“	×	“
19:4	때문이다	때문이다	했던 것이라	이는 됨이러라	×	때문이다	since	“	×	“	×	wenn
43	×	×	×	×	×	×	×	“	×	“	×	×
21:22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때문이다	for	because	for	“	×	denn
23:29	×	×	×	×	×	×	just as	for	“	“	×	“
31	~거든	~거든	~거든	~거든	~거든	~거든	if	“	“	“	if	wenn
24:29	~으니	~으니	~으니	×	~으니	~으니	for	“	<u>2</u> and <u>1</u>	“	<u>2</u> and <u>1</u>	×
39b	×	×	×	×	×	×	×	×	×	daß	×	×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요1:15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계심이라	때문에	때문이다	bacause	for	because	weil	because	denn
17	×	×	×	×	×	사실	for	×	for	denn	×	×
30	~하기에	~하기에	때문이다	계심이라	때문에	때문이다	because	for	because	weil	because	denn
4:22	때문이다	때문이다	×	“	때문이다	“	for	×	for	denn	×	“
5:38	“	“	때문이다	“	~므로	“	“	for	because	weil	because	weil
39	~하기에	“	“	~하고	~알고	때문에	because	~ing	~ing	denn	“	×
6:38	때문이다	“	×	×	×	때문이다	for	for	because	“	×	×
7:8	~으므로	~으므로	~으므로	~으니	~으니	“	because	because	“	weil	×	weil
29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음이니라	×	“	“	“	“	denn	because	denn
8:14	“	“	“	앞이라	~으니	“	for	“	“	weil	×	nämlich
16	“	“	“	계심이라	때문이다	“	because	“	“	“	because	denn
20	“	“	“	음이러라	~던 것이라	“	“	“	“	“	“	“
29	“	“	“	~으므로	때문이다	“	for	for	for	“	×	“
44b	“	“	“	음이니라	“	“	“	“	×	“	×	weil
10:4	“	“	“	~고로	때문에	“	because	because	because	“	because	“
5	“	“	“	“	“	“	“	“	“	“	<u>2</u> and <u>1</u>	“
11:47	~으니	~으니	~으니	~하니	~으니	~으니	×	×	×	×	×	×
12:49	×	×	×	~으니	×	때문이다	for	×	×	×	×	×
14:28c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크심이니 라	~이니	“	“	for	for	weil	because	daß
15:5	“	×	×	“	×	“	×	“	“	denn	×	×
15	×	×	×	“	×	“	because	×	because	“	×	denn
15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for	because	“	weil	×	“

역본 책장절	표준개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요16:1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크심이니 라	×	때문이다	×	for	since	weil	×	×
17:8a	×	×	×	×	×	사실	for	“	for	denn	×	×
9	×	×	×	~함이라	×	~때문이라	for	because	because	“	because	×
24	×	×	×	~하사	~하셔서	~하기에	because	“	“	weil	×	weil
18:2	~으므로	~으므로	때문이다	~므로	때문에	때문이라	“	“	since	“	<u>2</u> and <u>1</u>	denn
18:18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고로	~이어서	때문에	<u>2</u> and <u>1</u>	“	<u>2</u> and <u>1</u>	“	“	×
19:20	~므로	~므로	×	“	때문에	“	for	“	because	“	“	<u>2</u> dehalf <u>1</u>
42	“	“	때문에	“	“	“	since	“	since	“	“	weil
행1:5	×	×	때문이다	×	×	사실	for	×	×	denn	×	×
17	×	×	×	×	×	×	×	for	×	×	×	×
2:25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사실	×	“	×	denn	really	×
4:21	~므로	~므로	때문에	ㅁ 이러라	때문에	때문이라	because	because	since	da	×	denn
5:38	×	×	×	×	×	사실	for	for	×	denn	×	×
9:15	×	×	×	×	×	×	×	“	for	“	×	×
10:14	×	×	×	×	×	×	×	×	×	×	×	×
38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러라	<u>2</u> 그래서 <u>1</u>	때문이다	because	for	because	denn	<u>2</u> <u>1</u>	denn
11:8	×	×	×	×	×	×	×	×	v	×	×	×
24	×	×	×	×	×	×	×	for	for	denn	×	denn
13:41	×	×	×	×	×	×	for	“	×	×	×	×
22:21	×	×	×	×	터이니	터이니	×	“	×	×	×	×
롬 8:29	×	×	×	ㅁ 이라	×	×	×	“	×	denn	×	×
11:36	×	×	×	“	×	×	for	×	×	“	×	×
고전4:9b	×	×	×	×	×	사실	“	for	×	ja	×	×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고전10:17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이니	때문이다	because	because	as	weil	when	×
11:15	“	×	×	연고라	×	“	for	for	×	×	×	×
고후4:6	×	×	때문이다	×	×	×	“	“	×	denn	×	×
7:8a	×	×	×	ㅁ 이라	×	×	×	×	×	“	×	×
8:17	×	×	×	×	×	~런 것이라	for	for	×	nämlich	when	×
10:10	×	×	×	×	×	×	“	×	×	×	×	×
갈3:11b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	때문이다	because	because	since	×	×	denn
4:12	×	×	×	×	×	×	for	for	×	denn	×	×
20	×	×	×	ㅁ 이라	×	×	because	×	×	“	really	×
6:8	×	×	×	×	×	×	×	×	×	×	×	×
엡4:25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	×	for	for	since	denn	<u>2</u> . <u>1</u>	denn
5:23	“	“	“	“	×	때문이다	“	“	“	“	×	“
30	×	×	×	“	×	“	“	because	because	“	because	ja
6:12	×	×	×	ㅁ 이라	×	실상	for	for	for	denn	×	denn
빌1:29	×	×	×	“	×	×	“	“	“	“	×	×
골1:16	×	×	때문이다	“	때문이다	×	“	×	for	“	×	×
19	×	×	×	“	×	×	“	for	because	“	×	×
2:9	×	×	×	×	×	×	“	“	×	“	×	×
살전2:1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라	~으니	×	때문이다	×	×	for	“	and so	×
3:8	“	“	×	×	×	×	for	×	now	nun	×	×
4:16	~이니	~이니	×	×	×	×	“	because	×	×	×	×
5:9	×	×	때문이다	×	×	×	“	for	×	denn	×	denn
살후2:3	×	×	×	×	×	×	“	×	×	“	×	×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딤후전4:4	×	×	×	ㅁ 이니라	×	×	for	for	×	denn	×	denn
딤후1:16	×	×	×	×	×	×	because	“	because	“	×	×
히8:10	×	×	×	×	×	×	×	“	×	“	×	×
11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터이니	때문이다	because	“	×	“	×	denn
12	×	×	“	×	×	“	for	“	since	“	×	×
약1:12	때문이다	때문이다	×	ㅁ 이라	×	×	because	“	×	“	×	denn
23	×	×	×	×	×	×	×	×	×	“	×	×
5:8	×	×	×	×	×	~으니	because	for	because	“	×	denn
벧전1:16	때문이다	때문이다	×	~하니	~하니	~하니	“	“	for	weil	×	weil
2:15	“	“	때문이다	×	×	때문이다	for	“	×	so	×	×
3:12	×	×	×	×	×	“	“	“	for	denn	×	denn
18	×	×	×	ㅁ 이라	×	사실	“	“	×	×	×	×
4:1	×	×	×	“	×	×	because	×	×	denn	because	×
8	×	×	×	×	×	때문이다	“	because	since	“	“	denn
1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때문이다	“	for	“	for	“	×	“
17	“	“	“	×	×	×	“	×	×	“	×	×
5:5	×	×	×	×	×	×	because	because	because	“	×	es heißt ja:
7	×	×	×	ㅁ 이라	×	×	“	for	since	“	×	denn
요일2:16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	×	때문이다	×	×	because	“	×	×
3:8	“	“	“	ㅁ 이라	했던 것이다	“	because	for	since	weil	×	denn
9a	“	“	“	“	~므로	“	“	because	because	“	×	weil
3:11	×	×	×	×	×	×	×	for	×	“	×	×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요일4:7	×	×	×	ㅁ 이라	×	때문이다	for	because	since	weil	×	denn
5: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because	“	×	“
7	×	×	×	×	×	×	“	for	so	“	in fast	×
9	때문이다	×	×	×	때문이다	×	because	×	for	“	×	denn
요일1:7	×	×	때문이다	×	“	사실	×	×	×	“	×	×
유1:11	×	×	×	×	×	×	×	×	because	“	×	×
계3: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연고라	×	때문이다	for	for	×	“	because	×
8	×	×	“	×	×	“	×	×	×	“	×	×
4:11	×	×	×	×	×	“	for	because	for	“	×	×
5:9	×	×	×	×	×	“	because	for	because	“	because	×
6:17	×	×	때문이다	~으니	×	“	for	“	for	“	×	×
7:17	×	×	×	ㅁ 이라	×	×	“	because	because	“	×	×
11:2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니	~은즉	×	때문이다	because	for	“	“	×	weil
12:10	×	×	×	×	×	“	for	“	now that	“	×	seit
12a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므로	×	×	because	“	because	“	×	×
14:7	×	×	×	ㅁ 이니	×	×	“	“	“	“	×	×
15	×	×	×	~므로	2 . 1	×	“	“	×	“	×	×
15	×	×	×	ㅁ 이라	“	때문이다	for	(s)	×	weil	×	×
18	×	×	×	×	×	×	because	“	×	denn	×	×
15:1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	because	“	×	×
4	×	×	×	×	×	×	for	×	for	“	×	×

역본 책장절	표새 개정원고	표준새	새번역	개역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계15:4	×	×	×	×	하시니	×	×	for	×	“	×	×
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으매	×	과연	for	“	for	“	because	denn
16:6	~므로	~므로	~으니	~므로	~므로	실상~하기에	“	“	×	“	×	×
21	~해서	~해서	~하여	ㅁ 이라	~해서	~했던 것이라	because	because	×	weil	because	denn
17:14	때문이며	때문이며	때문이다	~므로	×	때문이다	“	for	because	denn	“	“
18:3	때문이다	때문이다	“	~인하여	때문이다	“	for	“	×	“	×	×
5	×	×	×	×	×	“	“	“	×	“	×	×
7	×	×	×	×	×	“	×	×	×	×	×	×
8	때문이다	때문이다	×	ㅁ 이라	×	“	for	for	×	denn	because	denn
10	×	×	×	×	×	×	×	×	×	“	×	×
11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때문에	때문이다	because	because	when	“	because	×
17	×	×	×	×	×	×	×	×	×	×	×	×
19	×	×	×	×	×	×	×	×	×	×	×	×
23	~하고	~하고	~하였고	×	~하였고	~하였고	×	×	×	denn	×	×
23	때문이고	때문이고	~하였고	×	~하였으며	~하였으며	×	×	×	ja	×	×
19:2	×	×	×	~인지라	×	×	for	for	×	denn	because	×
19:2	×	×	×	×	×	×	×	×	×	×	×	×
6	×	×	×	×	×	×	for	for	because	denn	×	×
21:4	때문이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ㅁ 이라	때문이다	때문이다	“	“	×	“	×	×
22:5	“	“	“	“	“	“	“	“	because	“	×	×
10	~으니	~으니	~으니	×	~으니	“	because	“	“	“	×	denn

<표 2>

역본 번역 회수	표준새 번역 개정원고	표준 새번역	새번역	개역 한글판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때문이다	90	76	62		13	59						
따라서				73								
for							108	107	52			73
denn										163		
because							65	39	61		32	
since							2		17			
weil										28		8
now that							1		2		2	
now								1				
…ing								1	1			
seit												1
da										2		
ja										2		
- - -											15	
in fact											1	
really											1	
and so											1	
-때문에	7	5		8	5							
-므로	4	5	1									
-하니	2	2	2									
-하고	2	2										
-으니	10	10	11		12	8						
-이니	2	2	2	1		15						
(연)고로/인하여				5								
사실						21						
-던 것이었다						7						
기타	7	6	13	33	10	34	6	0	28	9	4	22
소계	116	101	77	86	63	115	176	148	113	195	52	82
×(생략한 곳)	106	122	139	110	156	80	47	81	88	25	173	125

1) KJV는 230개의 ‘호티’를 for로 번역했다. 따라서 ‘호티’는 대등접속사 for의 의미로 사용된다. RSV, NRSV, LB, ZB는 단지 몇 곳만 예외로 하고 KJV의 이 견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2) NIV, NEB, EJB, CEV는 이 for-대등절을 because-종속절로 각각 65회, 39회, 61회, 32회 바꾸었으며 DJB, GN는 denn-대등절을 weil-종속절로 각각 28

회, 8회 바꾸었다. KJV는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호티’를 한 번은 because로, 한 번은 for로 번역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 다음에 사용된 ‘호티’는 때로는 for/denn으로, 때로는 because/weil로 번역되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는 원인 규명과 이유/근거/증거 제시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because/weil이 for/denn보다 더 직접적이며 더 분명한 이유/근거/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어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A: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for here are his footprints.

B: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because his prints are here.

C: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because there is no other road.

A는 B보다 덜 직접적인 근거/증거/이유이다. B는 A보다 더 직접적이며 특수한 증거/근거/이유로 제시되었다. C는 명백한 증거이며 동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3) ‘호티’를 원인 제시의 접속사(=because)로 해석하느냐 논리적 이유/근거/증거 제시의 접속사(=for)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호티’-절이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한 것이 그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구원 사건을 일으킨 원인인 셈이 된다. 정말로 그렇다면 공로주의 구원설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호티’를 for로 이해하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즉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KJV, NIV, RSV, NRSV, LB, ZB는 for/denn으로 번역했다. 다음 번역들은 이것이 결과적 현상임을 더 분명하게 나타냈다.

And so, I tell you, her great love proves that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NEB).

So I tell you that all her sins are forgiven, and that is why she has shown great love(CEV).

Dehalb sage ich dir: Ihre vielen Sünden sind vergeben, darum hat sie viel geliebt(DJB).

Darum versichere ich dir: Ihre große Schuld ist khr vegeben worden. Das zeigt sich an der Liebe, die sie mir erwiesen hat(GN).

4) KJV, RSV, NRSV, LB, ZB 이외의 거의 대다수의 번역본은 for/denn을

뜻하는 ‘호티’를 번역에서 생략했다. CEV=173회, 「공동번역」=156회, 「새번역」=139회, GN=125회, 「표준새번역」=122회, 「개역」=110회, 「표준새번역개정원고」=106회, EJB=88회, NEB=81회, 「200주년」=80회, NIV=47회, DJB=25회인데 이 경우는 ‘호티’가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for/den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for/denn의 의미는 접속사를 생략하더라도 앞뒤의 문장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라운 것은 CEV는 성경전서 전체에서 for-대등절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GN, EJB, NEB, NIV가 각각 125회, 88회, 81회, 47회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현대적인 번역일수록 for/denn-대등절의 for/denn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성서는 「공동번역」=156회, 「새번역」=139회, 「표준새번역」=122회, 「개역」=110회, 「표준새번역개정원고」=106회, 「200주년」=80회이다. 이 통계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공동번역」이 가장 자유롭게 문체를 구사했으며 「200주년」이 원문에 가장 형식적 일치를 기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표준새번역개정원고」는 「200주년」 다음으로 그리고 「개역」보다 더 많이 형식적 일치를 추구한다. 「표준새번역」이 122회로 나타난 것은 「공동번역」과 「개역」 사이의 중간 노선을 취하려는 「표준새번역」의 번역 취지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5) CEV는 ‘호티’/for-대등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대등절을 앞 문장 앞에 놓기도 한다(마 5:34; 15:23 등등). 명령문 다음에 이것이 올 때에는 접속사를 생략한 채 그 문장을 원래 자리에 둘 수도 있고(마 17:15; 행 9:15; 약 5:8; 벧전 5:5; 계 14:15; 22:10) 앞 문장 앞에 놓을 수도 있다(계 14:18; 22:10).

6) 마태복음 13장 16절의 ‘호티’-절을 KJV, RSV, NRSV, GN는 for/denn-대등절로, NIV, NEB, EJB, CEV, ZB, DJB는 because/weil-종속절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원고」, 「새번역」, 「공동번역」, 「200주년」은 다 같이 “보고 있으니/듣고 있으니”로 번역했으며 「개역」은 “봄으로/들음으로”라고 번역했다. 우리말 번역들은 모두 이 ‘호티’-절이 이유/근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호티’-절은 영어/독일어 번역본에서는 CEV만 예외로 하고 모두 for/denn-절로 번역되었다.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원고」, 「새번역」은 “때문이다”로, 「공동번역」과 「200주년」은 “하였던 것이다”로, 「개역」은 “하였음이니라”로 번역했다.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독일어의 because/weil-절이 이유/근거/증거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마 13:16) 우리말의 “때문이다”도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바로 지금의 이 문장 자체도 논증을 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여왕은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것이 그녀가 장차 심판을 행하는 데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혜를 들으러 오고 심판 수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함과 합격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7. 마태복음 5장 3,4,5,6,7,8,9,10절과 누가복음 6장 19,20,21절의 ‘호티’절을 「개역」은 “…것임이라”라고 번역했다. ‘…것임이라’는 ‘…것이라’와 엄연히 다르다. ‘…것이라’는 단순한 진술인 데 반하여 ‘…것임이라’는 앞에 발언한 내용이 진실인 까닭/소이/이유는 …것이라는 사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주년」은 시적 형식으로 번역했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표준새번역개정원고」는 “…것이기 때문이다”로 번역했다. 이와 달리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은 헬라어 접속사의 의미를 한국어 낱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략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번역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원문의 ‘호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려서 번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낱말을 사용하여 ‘호티’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

어머니가 아침밥을 다 지어놓고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울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 1) 빨리 일어나. 밥 다 되었다.
- 2) 밥 다 되었다. 빨리 일어나.
- 3) 밥 다 되었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
- 4) 밥 다 되었으니(까) 빨리 일어나.
- 5) 빨리 일어나. 밥 다 되었으니(까).
- 6) 빨리 일어나. 밥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 7) 밥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해.

위의 여러 가지 표현은 다 옳다. 3-7은 일어나라는 명령에 대한 근거/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그러나’, ‘때문에’, ‘때문이다’라는 낱말을 사용하거나 동사를 변형시켜서 명령문에 연결시켰다. 1-2는 아무런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고 앞 뒤 두 문장을 이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이 병렬된 것이 아니라 서술문의 내용은 명령문에 대하여 근거/이유를 제시하는 것임을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알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1 또는 2와 같은 형식의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말이 더 무게 있게 들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 3-7의 문장처럼 설명어를 덧붙이면 번거로운 친절성은 느껴질 수 있을지언정 말의 무게는 감소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는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의 회개 선포가 요약되어 있다. “회개하라”라는 명령문 다음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서술문이 이어져 있다. 원문에는 ‘가르’(=for/denn)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 한국어 번역 성서가 모두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중하게 들리며 원문의 뜻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사도행전 9장 1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계시록 14장 18절의 명령문 다음의 서술문을 한국어 성서는 모두 원문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마태복음 5장 3-10절과 누가복음 6장 19-23절은 구원의 선물에 대한 예수의 장엄한 선언/선포이며 시적 형식으로 작성된 말씀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서처럼 이유를 표시하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영어나 독일어 성서 중에 이 구절을 because/weil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어 번역인 NEB EJB CEV는 여기에 아무런 접속사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더우기 CEV는 성서 전체에서 이유를 표시하는 접속사 for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표준새번역개정원고」에서 이 구절을 “때문이다”로 번역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원문에 ‘호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호티는 영어/독일어로 옮기면 대등접속사 For/denn이지 종속접속사 because/weil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끝낸 후에 「구역성경」(1911)의 번역을 확인해 보고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역」은 ‘팔복선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먹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턱국이 저희 것이오
 인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더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더희가 싸

를 차지할 것이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은 원문의 접속사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의 장엄한 선언문적 성격과 우리말의 특성을 둘 다 잘 살린 좋은 번역이다. 「개역」이 이것을 ‘…것임이요’라고 개정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며 번역의 후퇴에 속한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